

‘열돔’ 폭염·열대야 길~게 간다

장마 끝 35도 넘는 가마솥 더위
잠 못드는 ‘열대의 밤’도 계속
전남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 발령

한달 여 동안 길었던 올해 장마가 끝나고 광주·전남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

지난 20일부터 광주·전남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급증, 가축 폐사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마솥 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1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열대야 현상도 길어질 것으로 관측돼 지역민들의 잠 못드는 밤도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폭염 속 산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피약별이나 축사 등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건강 관리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27일을 마지막으로 올해 장마가 사실상 종료됐고, 31일 낮 최고기온은 31~35도에 분포하고 8월 1일도 30~35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30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지난 6월 22일 남부지방에 시작된 장맛비가 지난 27일로 끝나 평년(31.4일)에 비해 4일 더 길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장마기간 광주·전남 지역에는 총 451.3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장마가 끝남에 따라 폭염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당분간 열대야도 지속되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티베트에서 흘러나온 고기압의 중심과 북태평양에서 흘러나온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층부에 겹치면서 ‘열돔 현상’으로 인해 폭염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29일까지 광주·전남에서 총 150명(광주 23명, 전남 12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전남 13개 시·군 46개 농가에서 닭·돼지·오리 등 가축 총 2만 9322마리가 폐사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남의 경우 지난 24일 기준으로 함평·도암·득량·여수·가막만과 거문도 등 6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도 발령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데 따라 평년 대비 수온이 0.5~1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수온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우선, 양식 수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해역 중심으로 대응 장비 가동, 먹이 공급량 조절, 조기출하를 통한 사육밀도 낮추기 등 사전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 13개 시·군에 15억원을 지원해 산소발생기,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구축하고 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양식장 관리상태를 점검 지도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구례 수락폭포...“더위야 가리” 폭염특보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30일 구례군 산동면 수락폭포를 찾은 피서객들이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안군수 “반대” 무한반복 공항 이전 3차 회동 ‘빈손’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6년만의 만남 성과 없이 끝나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난항’
대구 군공항 이전은 착착 진행

실낱같은 기대를 안고 6년만에 이뤄진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의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3차 회동’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예상했던 대로 김산 무안군수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무한 반복했고, 광역자치단체장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무안군수의 막무가내식 협상 방식에 별다른 대응조차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 정치력과 협상력 부재 등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사회에선 ‘호남 대표 하늘길’로 조성한 무안 국제공항이 민간·군공항 통합 지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부산기덕도 공항,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등 타지역 신설 공항과의 경쟁에서 뒷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30일 3차 회동에 따른 공동 입장문을 내고 “29일 오후 6년 만에 만나 3시간 동안 무안국제공항 문제가 서남권 발전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민·군 통합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밝히고 경청했으나 무안군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회동에서 기존에 약속한 1조원대 지원 외에도 무안공항 복합도시 건설 참여, RE100국가산단 조성 협조, 광주 공공기관(인재개발원)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대형 기관 무안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또 3차 공동 소음도 측정·검증, 지역민 여론조사, 이전 논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등도 제안했으나,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영록 지사 역시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단 조성, 공항 주변 호텔·카지노·컨벤션센터를 포함한 관광·국제물류 특구 등 미래형 신도시 개발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광주시에 무안군민이 신뢰할 수 있

도록 이전 지역 자원사업의 구체적 지원 리스트 등 통합 패키지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인 내년이 무안공항 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광주 국내선과 국제선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발전 방안을 마련,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산 무안군수는 군 공항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지역 내에선 진전없는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등 19개 광주경제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서’에서 “무안국제공항은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갖추고도, 6년간 93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지역민의 타 공항으로 연간 5500억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신성장 동력인 첨단 산업과 문화관광산업 유치·활성화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조적으로 지난해 4월 광주시와 동시에 군 공항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낸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구시는 29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군 공항 이전 사업대행자 선정,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대구·경북 신공항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회동에서 새로 만들어진 대구공항의 활주로는 2개지만, 우리 무안공항 활주로는 3개 일 것이고, 대구는 이제 철도와 도로를 놓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미 무안-광주 고속도로가 뚫렸고, KTX도 공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지금이라도 통 큰 합의만 하면 호남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아직 진심이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사고 33% 늘었다 ▶7면

코트닝 여행 - ‘허깅스’ 캠퍼하는 사람들 ▶22면

파리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전 금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